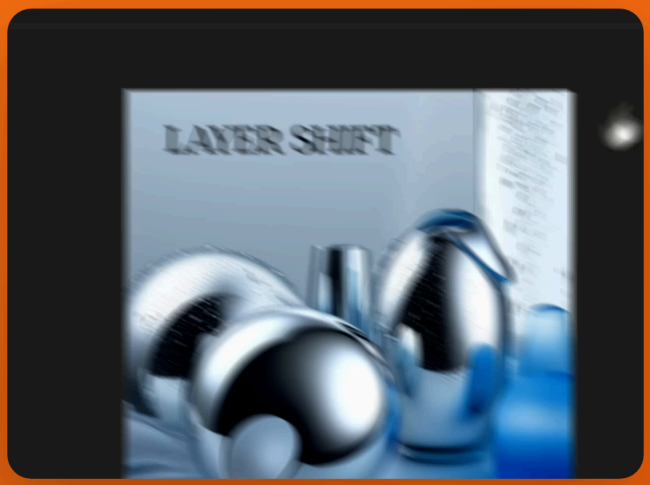
바이브 메이커 무료 자료

클로드로 캔바 디자인하기

디자인 툴 하나도 못 다뤄도,
말 한마디로 포스터가 나옵니다 — 복붙 프롬프트 5종 포함



바이브 메이커 @vibemak2r

docs.vibemake.kr

CONTENTS

목차

PART 0 왜 이제 디자인은 안 배워도 되나 1

0.1 툴을 못 다뤄도 되는 이유 1

0.2 이 자료로 얻는 것 2

0.3 준비물은 딱 두 개 2

PART 1 캔바 커넥터 연결하기 (5분) 3

1.1 커넥터 메뉴 열기 3

1.2 캔바를 찾아서 연결 4

1.3 권한 한 번 허용하면 끝 5

PART 2 포스터를 부르는 프롬프트 공식 8

2.1 모델은 Opus 4.8로 8

2.2 좋은 프롬프트의 5가지 요소 9

2.3 그대로 복사해 쓰는 템플릿 9

PART 3 결과 고르고 캔바에서 다듬기 12

3.1 후보 4종에서 고르기 12

3.2 캔바에서 열기 13

3.3 기본만 손봐도 완성 13

PART 4 이렇게도 쓴다 (활용 확장) 15

4.1 용도별 부탁 각도 15

4.2 용도만 바꾸는 복붙 표 15

PART 5 막힐 때 (FAQ · 체크리스트) 17

5.1 자주 막히는 다섯 가지 17

5.2 완성 체크리스트 17

이 자료의 모든 팁은 원문 딥리딩·실제 사례 검증을 거쳐 비전공자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. 복붙 박스(회색 코드 상자)는 그대로 복사해 프롬프트에 붙여넣으면 됩니다.

PART 0 전체 6장

왜 이제 디자인은 안 배워도 되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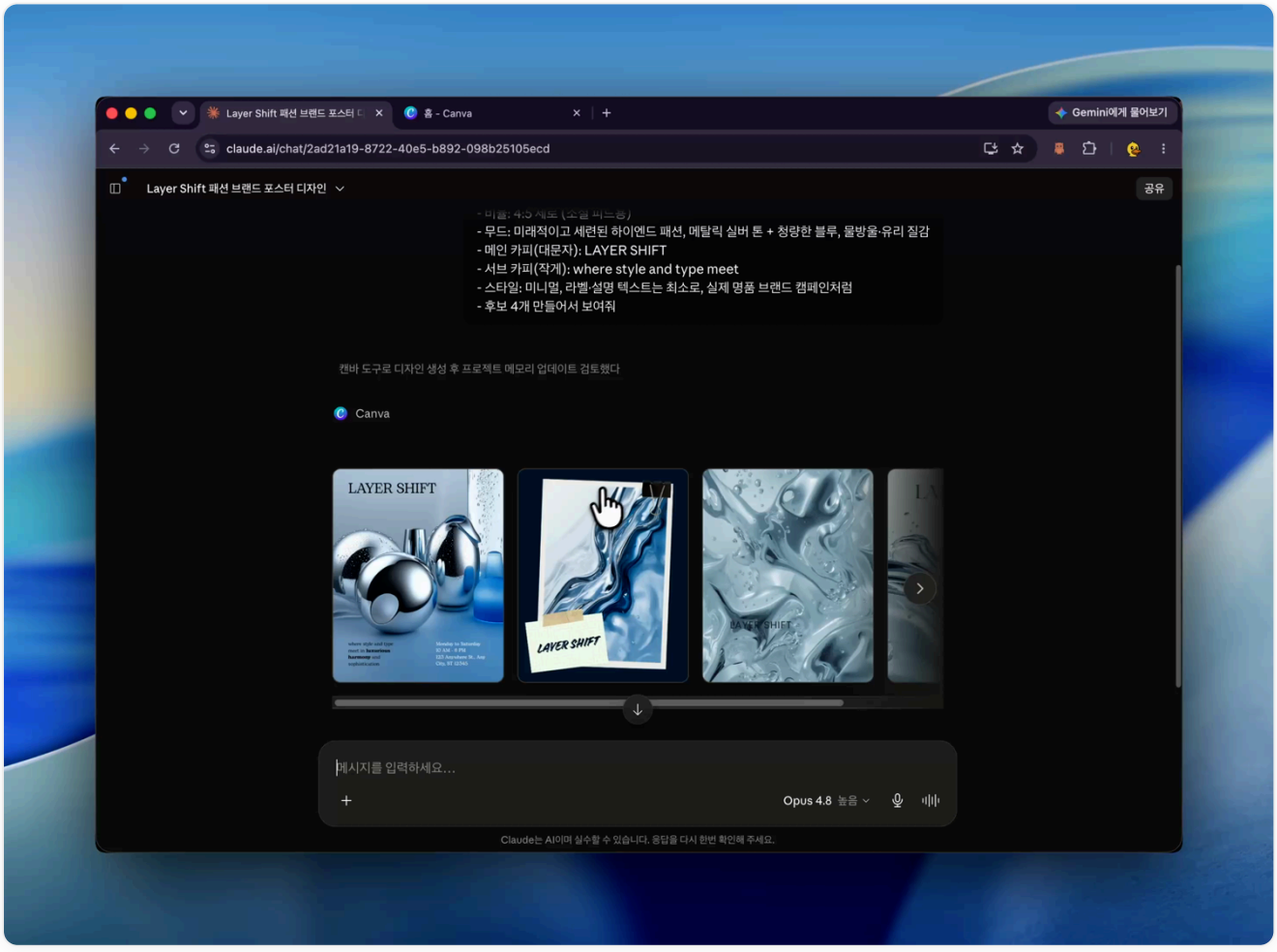
"포스터 하나 만들려는데, 포토샵은 너무 어렵고 캔바는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..."

디자인 툴 앞에서 이렇게 멈춰본 적 있으시죠. 색을 고르고, 폰트를 맞추고, 요소를 정렬하는 그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**그걸 배우지 않아도** 됩니다. 클로드(Claude)한테 말로 부탁하면, 캔바가 알아서 포스터를 만들어 주거든요.

0.1 툴을 못 다뤄도 되는 이유

핵심은 **커넥터(connector)** 라는 기능입니다. 클로드에 캔바를 한 번 연결해두면, 클로드가 우리 대신 캔바를 조작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줍니다. 우리는 "이런 포스터 만들어줘" 하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.

버튼을 어디서 누르는지, 폰트를 뭘 쓰는지 몰라도 됩니다. **말할 줄만 알면** 결과물이 나옵니다.



결과 예시 — 주제 한 줄로 이런 포스터 후보 네 개가 한 번에 나옵니다

0.2 이 자료로 얻는 것

- 클로드에 캔바를 연결하는 법 (딱 5분, 한 번만)
- 원하는 포스터가 나오게 하는 **프롬프트 공식** + 그대로 복사해 쓰는 템플릿 5종
- 나온 결과를 골라 캔바에서 손보는 법
- 상세페이지·썸네일·명함·배너까지 확장하는 법

0.3 준비물은 딱 두 개

1. **클로드 계정** (claude.ai) — 커넥터를 쓰려면 유료 플랜이 필요합니다
2. **캔바 무료 계정** (canva.com) — 무료로 충분합니다

둘 다 있으면 준비 끝. 다음 장에서 바로 연결해 봅시다.

✦ 이 PART의 핵심 정리

- 디자인 툴을 배우는 대신, 클로드에 캔바를 **연결**해서 말로 부탁한다
- 우리가 할 일은 "이런 걸 만들어줘"라고 설명하는 것뿐
- 준비물은 클로드 계정(유료)과 캔바 무료 계정, 이 둘이면 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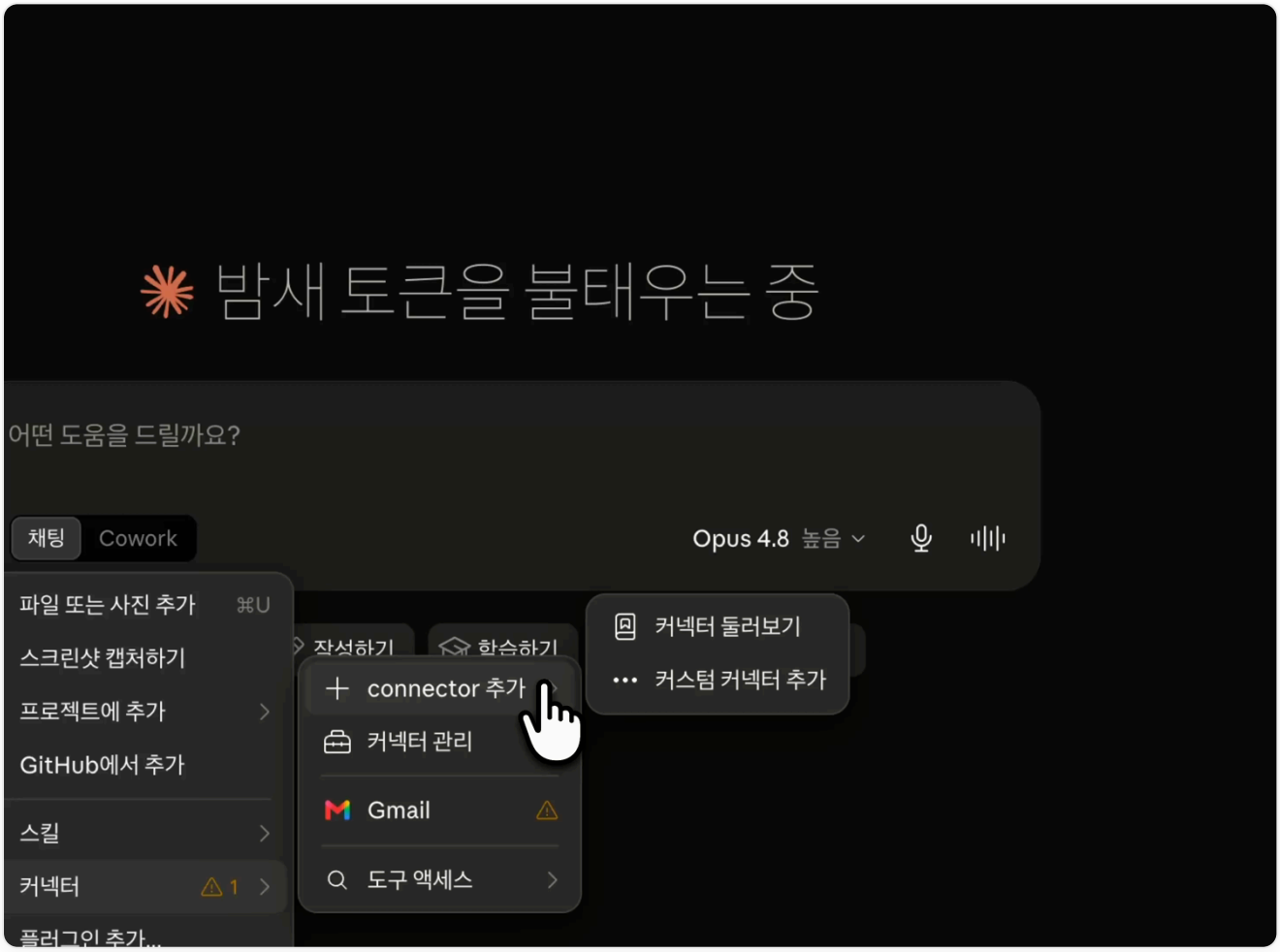
PART 1 전체 6장

캔바 커넥터 연결하기 (5분)

이 장은 **딱 한 번만** 하면 됩니다. 연결해두면 그 뒤로는 계속 유지되니까, 처음 한 번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. 화면 그대로 스크린샷을 넣었으니 똑같이 누르시면 됩니다.

1.1 커넥터 메뉴 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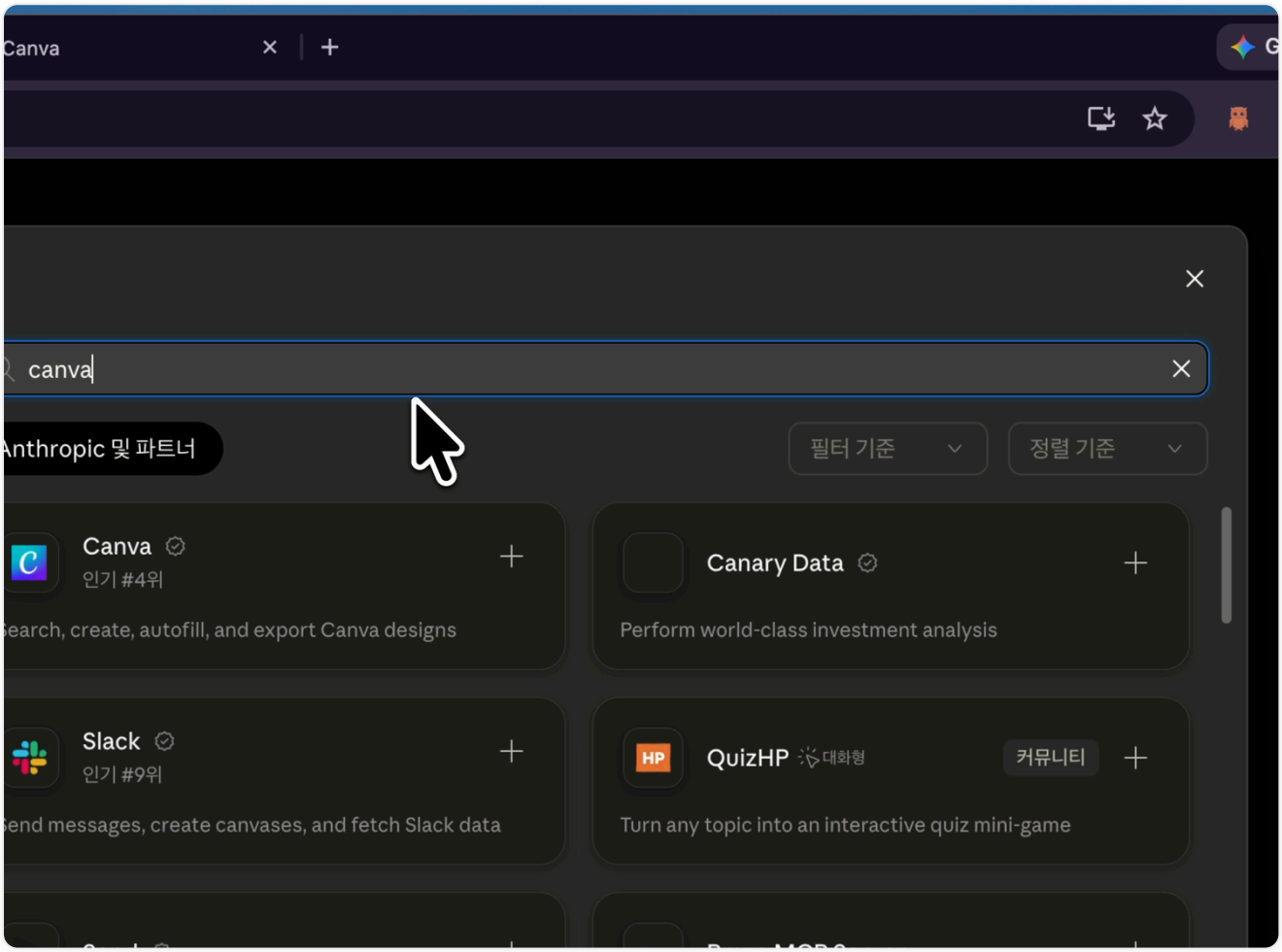
클로드 대화창 왼쪽 아래의 **+ 버튼**을 누르면 메뉴가 열립니다. 거기서 **커넥터**를 찾아 들어가면, "커넥터 둘러보기" 항목이 나와요. 그걸 누릅니다.



1단계 — + 메뉴 → 커넥터 → 커넥터 둘러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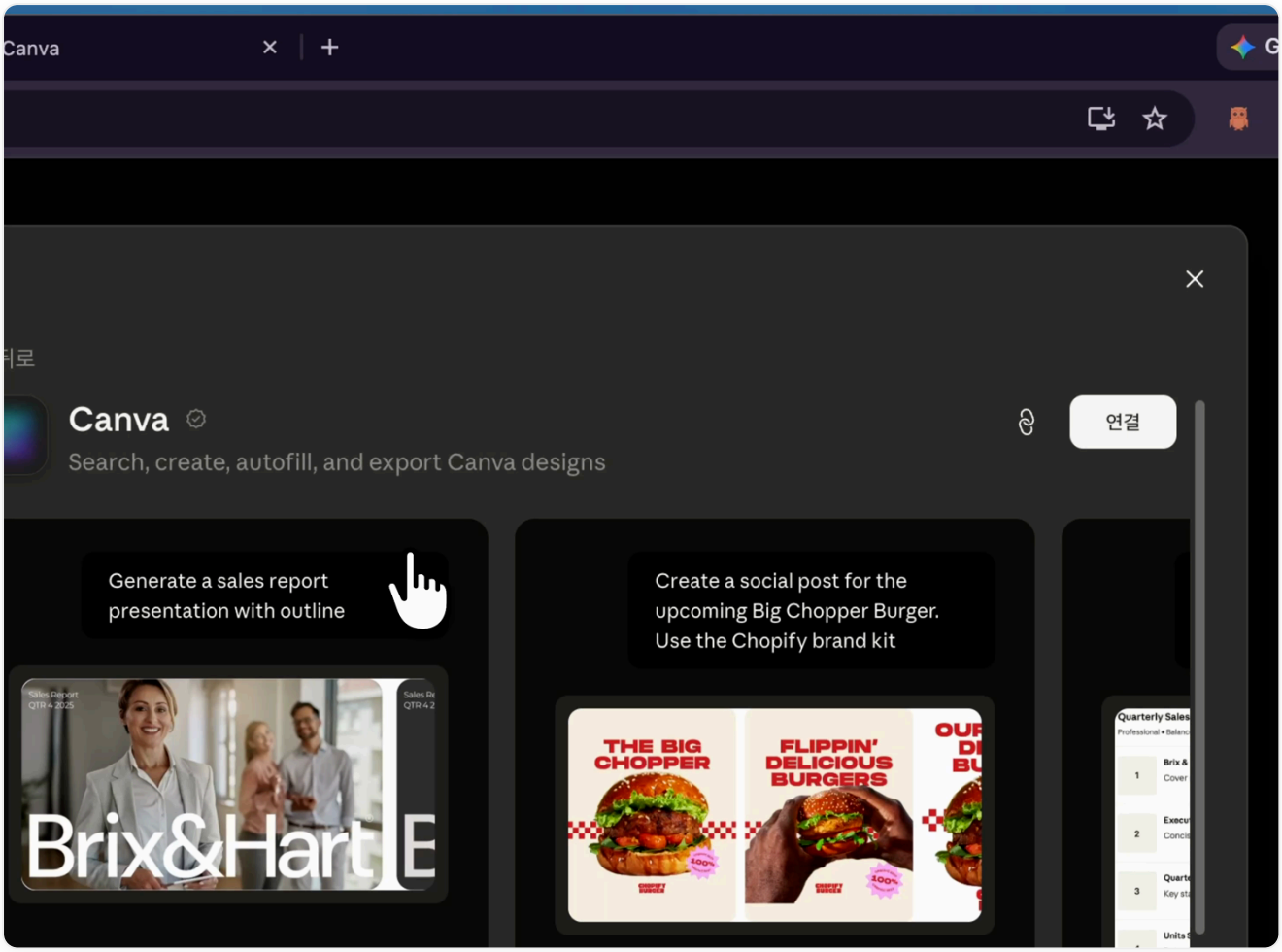
1.2 캔바를 찾아서 연결

커넥터 목록(디렉토리)이 열리면, 위쪽 검색창에 **canva**라고 칩니다. 목록에서 **Canva**가 뜨면 눌러서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요.



2단계 — 검색창에 canva 입력 → 목록에서 Canva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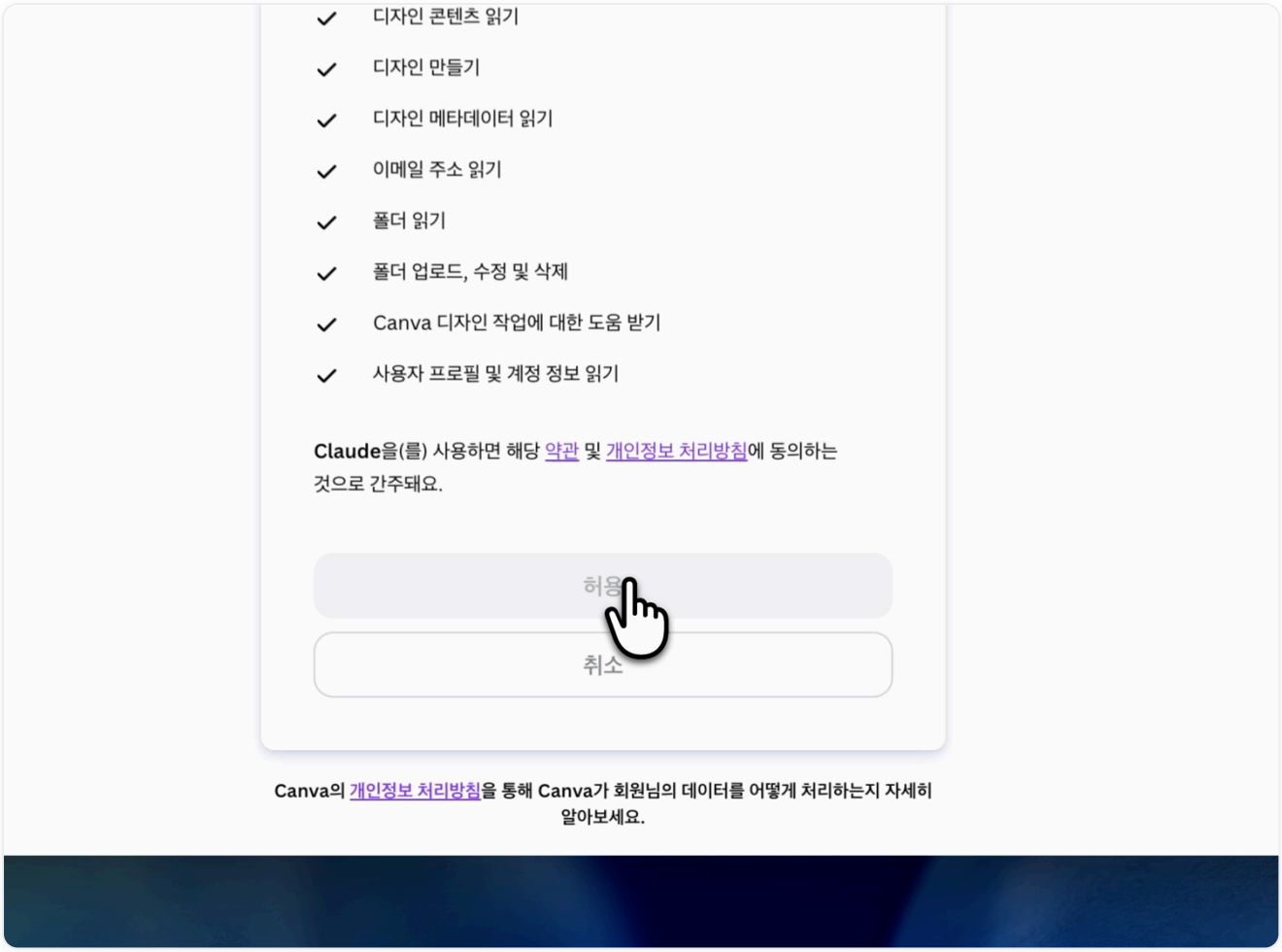
상세 화면 오른쪽 위의 **연결** 버튼을 누릅니다.



3단계 — Canva 상세 화면에서 우측 상단 '연결'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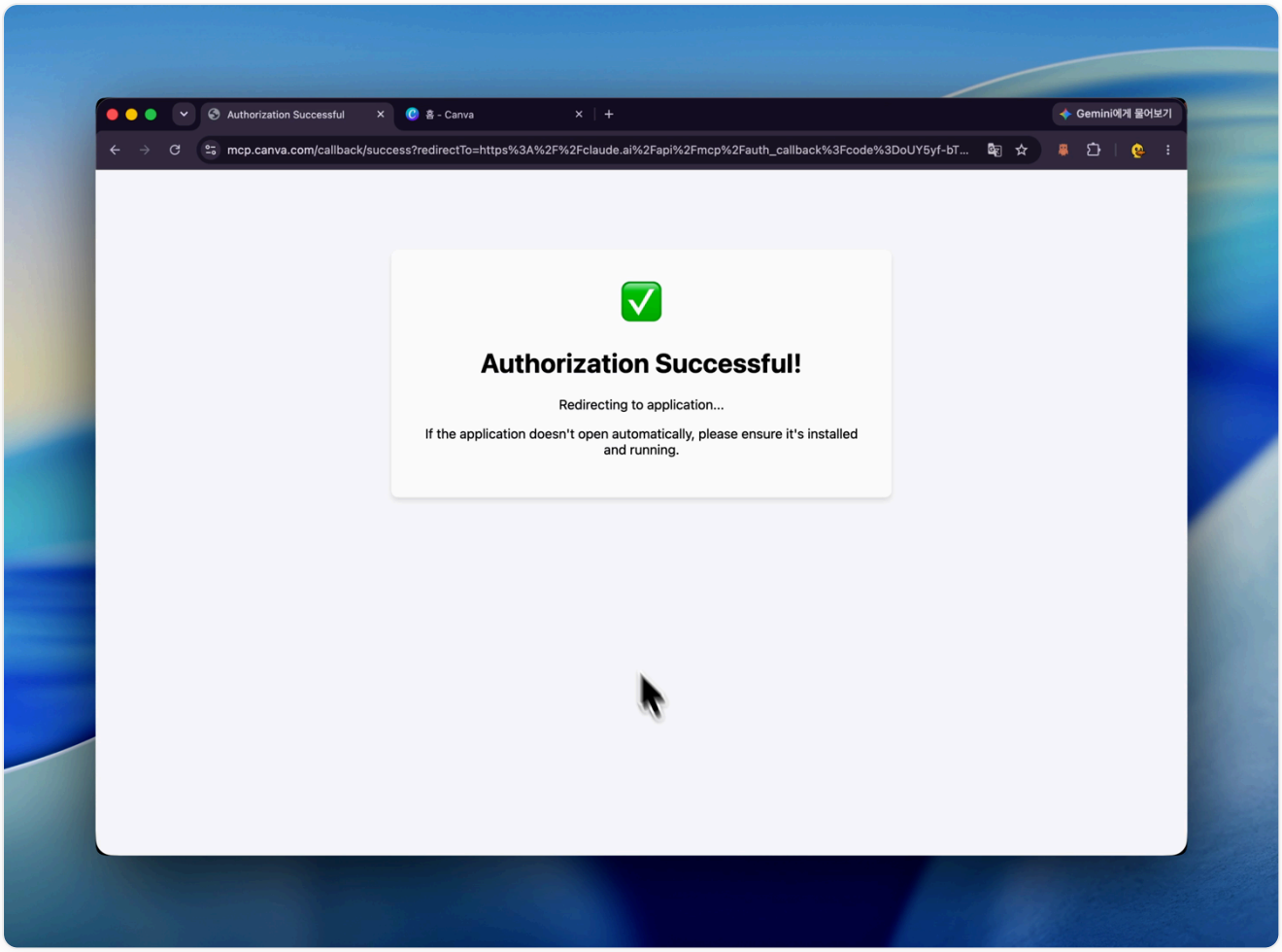
1.3 권한 한 번 허용하면 끝

연결을 누르면 캔바 권한 확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클로드가 캔바에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허락하는 단계예요. 아래로 내려서 보라색 **허용** 버튼을 누릅니다.



4단계 — 권한 목록을 확인하고 아래 '허용' 클릭

"Authorization Successful"(인증 완료) 화면이 뜨면 연결이 끝난 겁니다. 이 창은 자동으로 닫히거나, 닫아도 됩니다.



5단계 — 이 화면이 뜨면 연결 완료

⚡ 한 단계 더 — 커넥터가 메뉴에 안 보이면, 클로드를 **웹(claude.ai)** 에서 열었는지, 그리고 커넥터를 지원하는 플랜인지 확인하세요. 모바일 앱보다 웹에서 더 잘 보입니다.

✦ 이 PART의 핵심 정리

- ＋ 메뉴 → 커넥터 → 커넥터 둘러보기 순서로 들어간다
- 검색창에 canva → Canva 선택 → 우측 상단 '연결'
- 권한 화면에서 '허용' → "Authorization Successful"이 뜨면 끝 (한 번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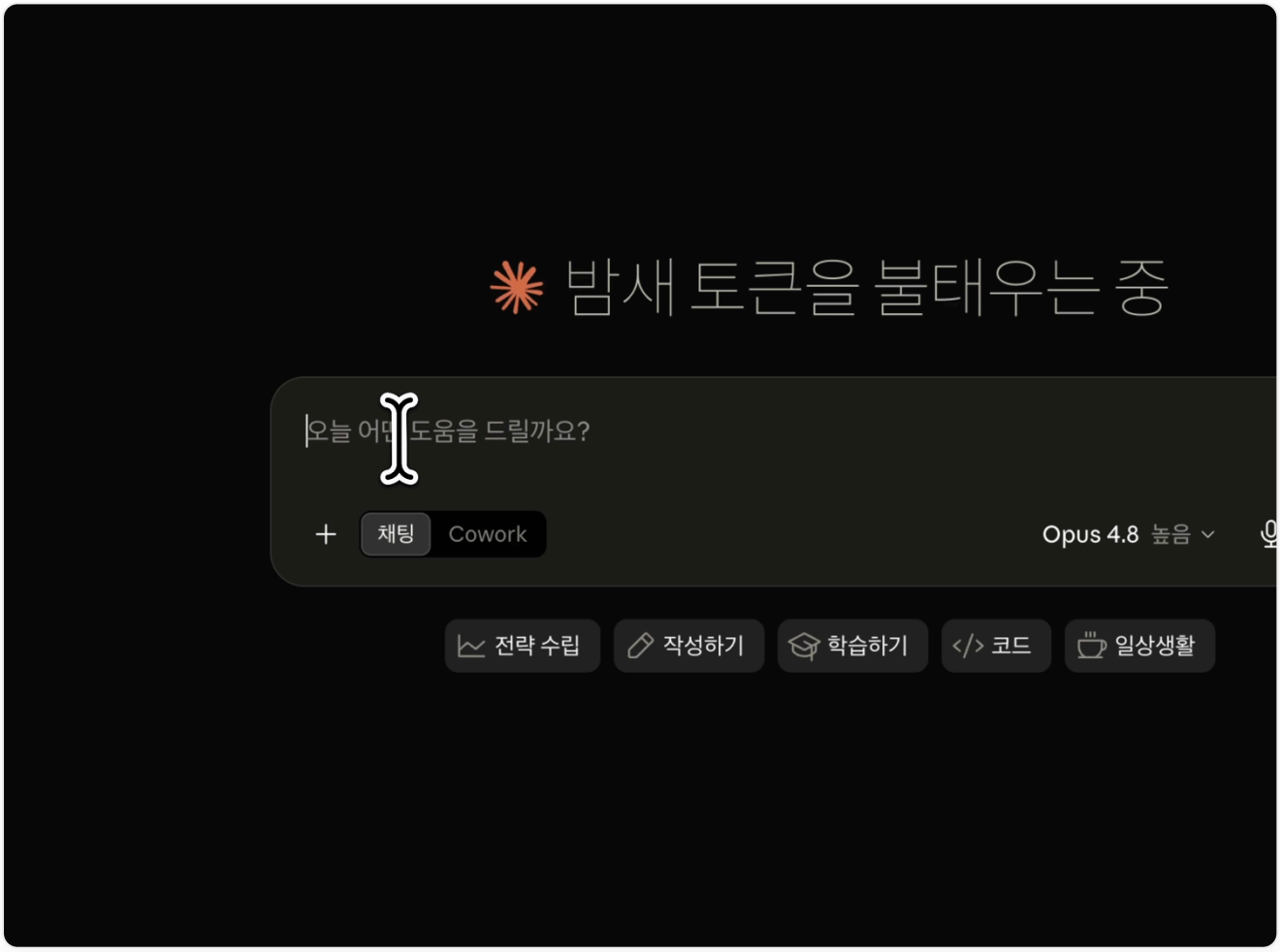
PART 2 전체 6장

포스터를 부르는 프롬프트 공식

연결이 끝났으면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. **어떻게 부탁하느냐**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. 이 장의 공식과 복붙 템플릿만 있으면, 막막하게 "포스터 만들어줘"라고만 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.

2.1 모델은 Opus 4.8로

부탁하기 전에, 대화창 아래 모델 선택을 **Opus 4.8(높음)** 으로 둡니다. 디자인처럼 감각이 필요한 작업은 더 똑똑한 모델이 결과가 좋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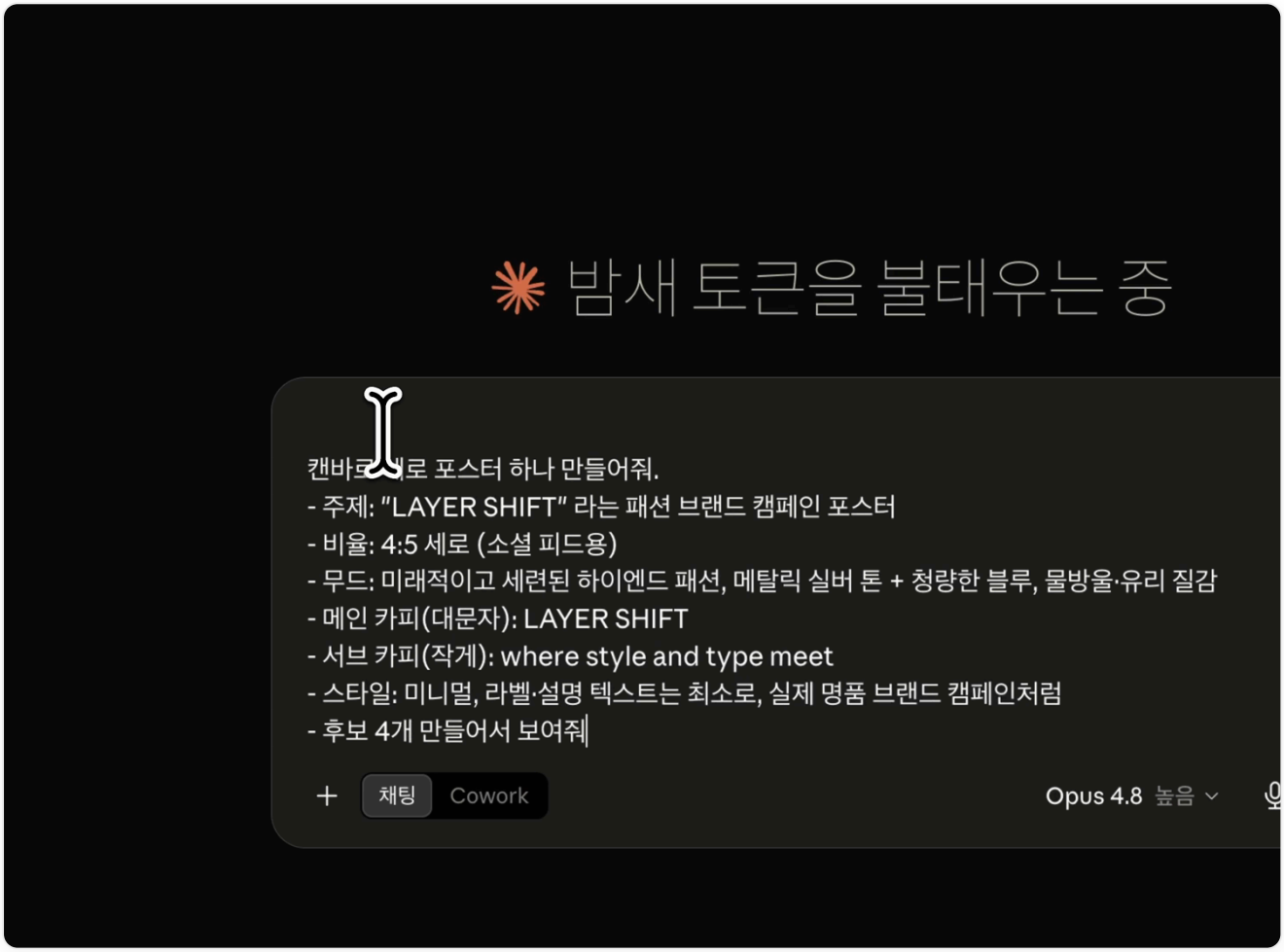


모델 세팅 — 대화창 하단에서 Opus 4.8 높음으로

2.2 좋은 프롬프트의 5가지 요소

포스터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하려면, 부탁에 이 다섯 가지를 담아 주세요.

1. **주제** — 무엇에 대한 포스터인지 (예: 여름 세일, 신제품 향수)
2. **비율** — 어디에 쓸 건지 (인스타 세로 4:5, 정사각 1:1, 가로 배너)
3. **무드** — 분위기 (고급스럽게, 발랄하게, 미니멀하게)
4. **카피** — 넣을 문구 (메인 한 줄, 서브 한 줄)
5. **스타일 레퍼런스** — 닮고 싶은 느낌 (예: "명품 화장품 캠페인처럼")



프롬프트 입력 — 다섯 요소를 담아 대화창에 적고 전송

2.3 그대로 복사해 쓰는 템플릿

대괄호 `[ ]` 안만 본인 내용으로 바꿔서 붙여넣으세요.

```
캔바로 포스터 하나 만들어줘.
- 주제: [무엇에 대한 포스터인지]
- 비율: 4:5 세로 (소셜 피드용)
- 무드: [고급스럽게 / 미니멀하게 / 발랄하게 중 택1]
- 메인 카피: [크게 들어갈 한 줄]
- 서브 카피: [작게 들어갈 한 줄]
- 스타일: [닮고 싶은 느낌, 예: 명품 캠페인처럼]
- 후보 4개 만들어서 보여줘
```

인스타 카드(정사각)용은 비율만 바꾸면 됩니다.

```
캔바로 인스타 카드 만들어줘.
- 주제: [주제]
- 비율: 1:1 정사각
- 무드: [분위기]
- 메인 카피: [한 줄]
- 스타일: [레퍼런스]
- 후보 4개 보여줘
```

가로 배너·썸네일용은 이렇게.

```
캔바로 가로 배너 만들어줘.
- 용도: [유튜브 썸네일 / 홈페이지 상단 배너]
- 비율: 16:9 가로
- 주제: [주제]
- 메인 카피: [크고 눈에 띄는 한 줄]
- 무드: [분위기]
- 후보 4개 보여줘
```

⚡ 한 단계 더 — 카피에 오타가 있으면 포스터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. 문구는 **완성된 상태**로 적어 주세요. 그리고 "후보 4개"라고 꼭 넣으면 여러 시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.

✦ 이 PART의 핵심 정리

- 모델은 Opus 4.8(높음)로 두면 감각적인 결과가 나온다
- 주제·비율·무드·카피·스타일 5요소를 부탁에 담는다
- 대괄호만 바꾸는 복붙 템플릿 3종으로 포스터·카드·배너를 만든다

PART 3 전체 6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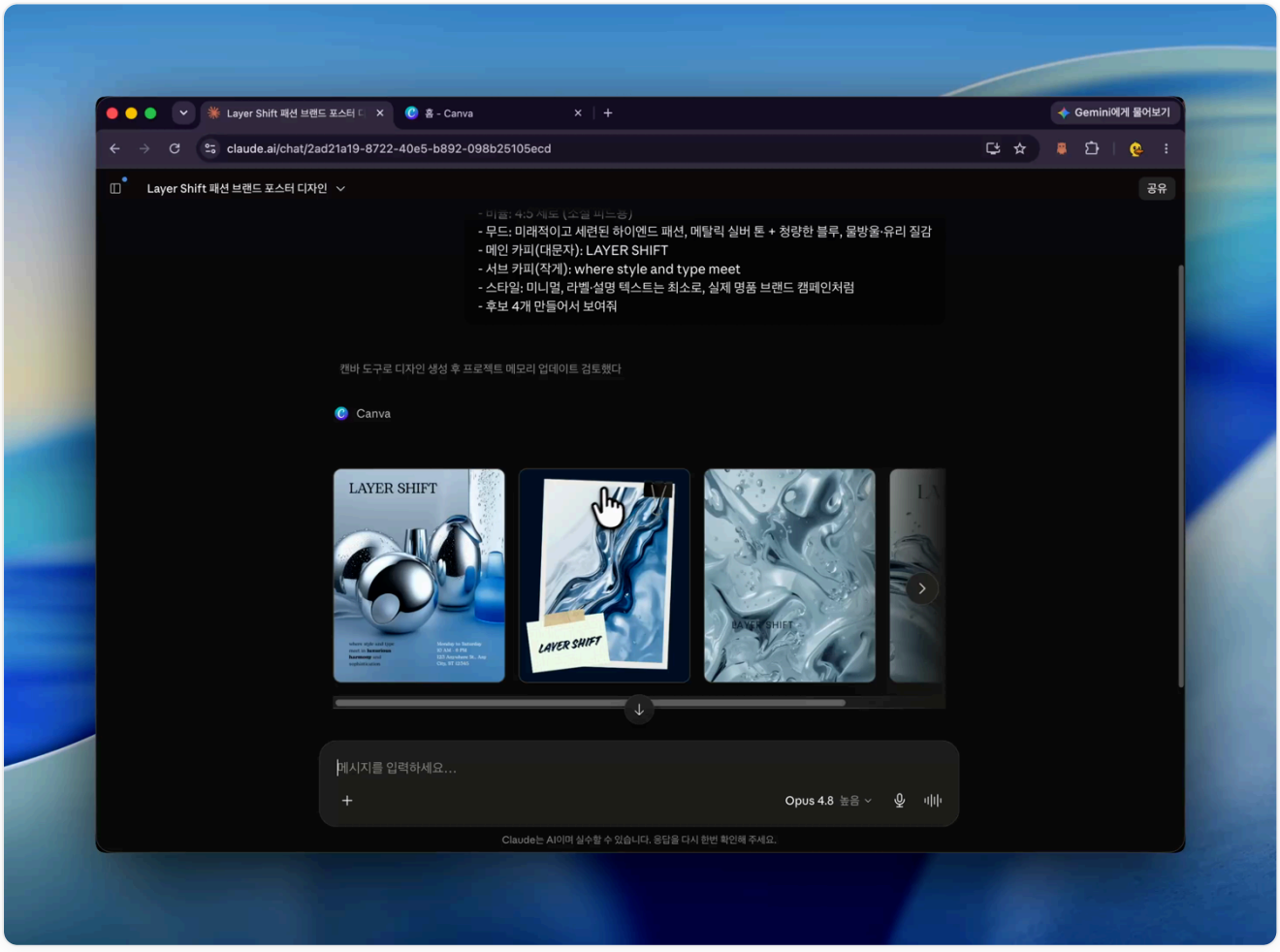
결과 고르고 캔바에서 다듬기

부탁을 보내면 30초쯤 지나 포스터 후보들이 나옵니다. 이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, 필요하면 캔바에서 조금만 손보면 완성이에요.

3.1 후보 4종에서 고르기

보통 네 개의 시안이 한 번에 나옵니다. 고를 때는 세 가지만 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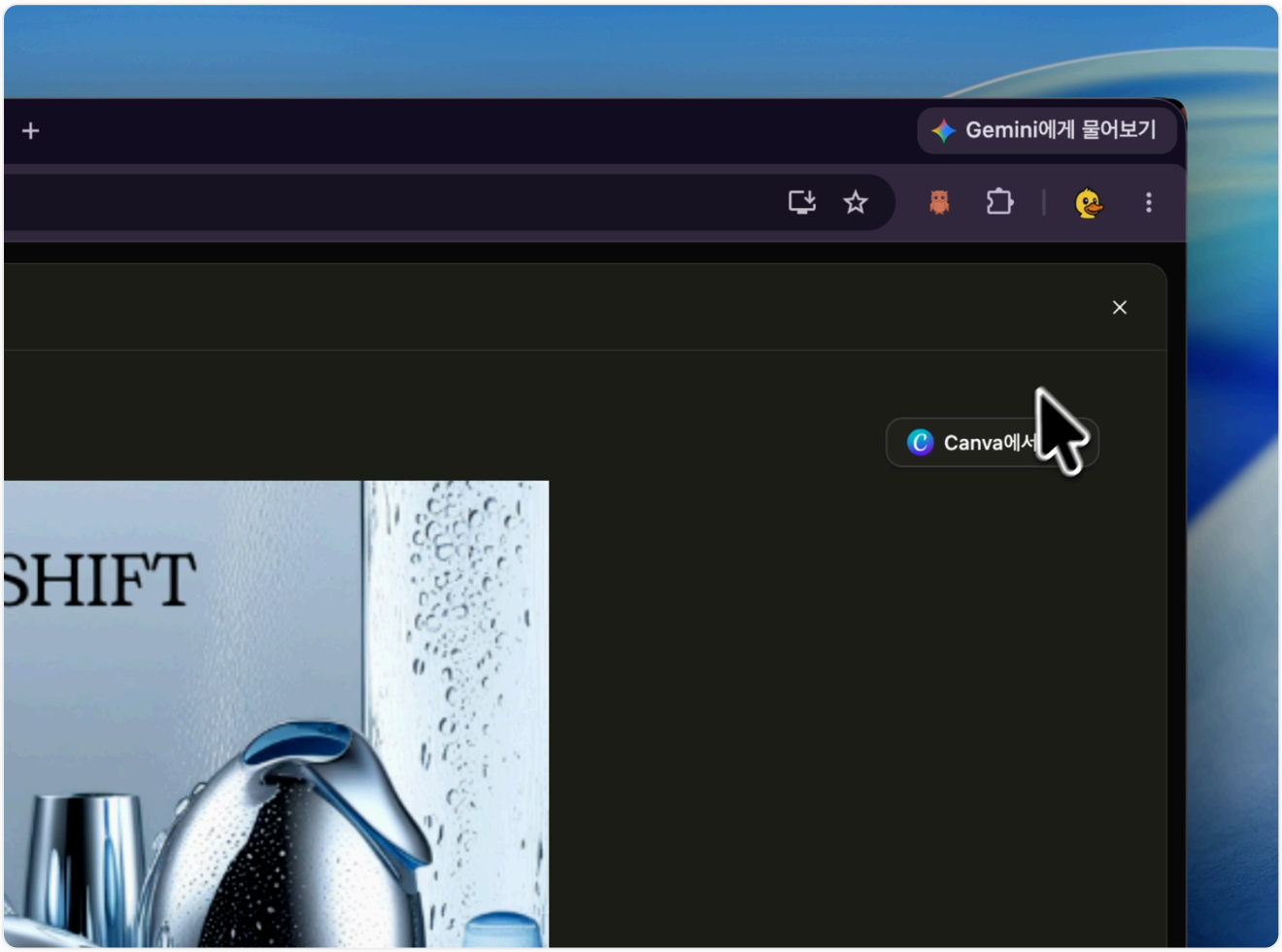
- **카피가 잘 읽히나** (글자가 배경에 묻히지 않나)
- **여백이 답답하지 않나**
- **주제 분위기에 맞나**



결과 확인 — 후보 네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

3.2 캔바에서 열기

마음에 드는 시안을 고르면 **"Canva에서 열기"** 버튼이 있습니다. 누르면 그 디자인이 내 캔바 계정의 편집 화면으로 그대로 넘어가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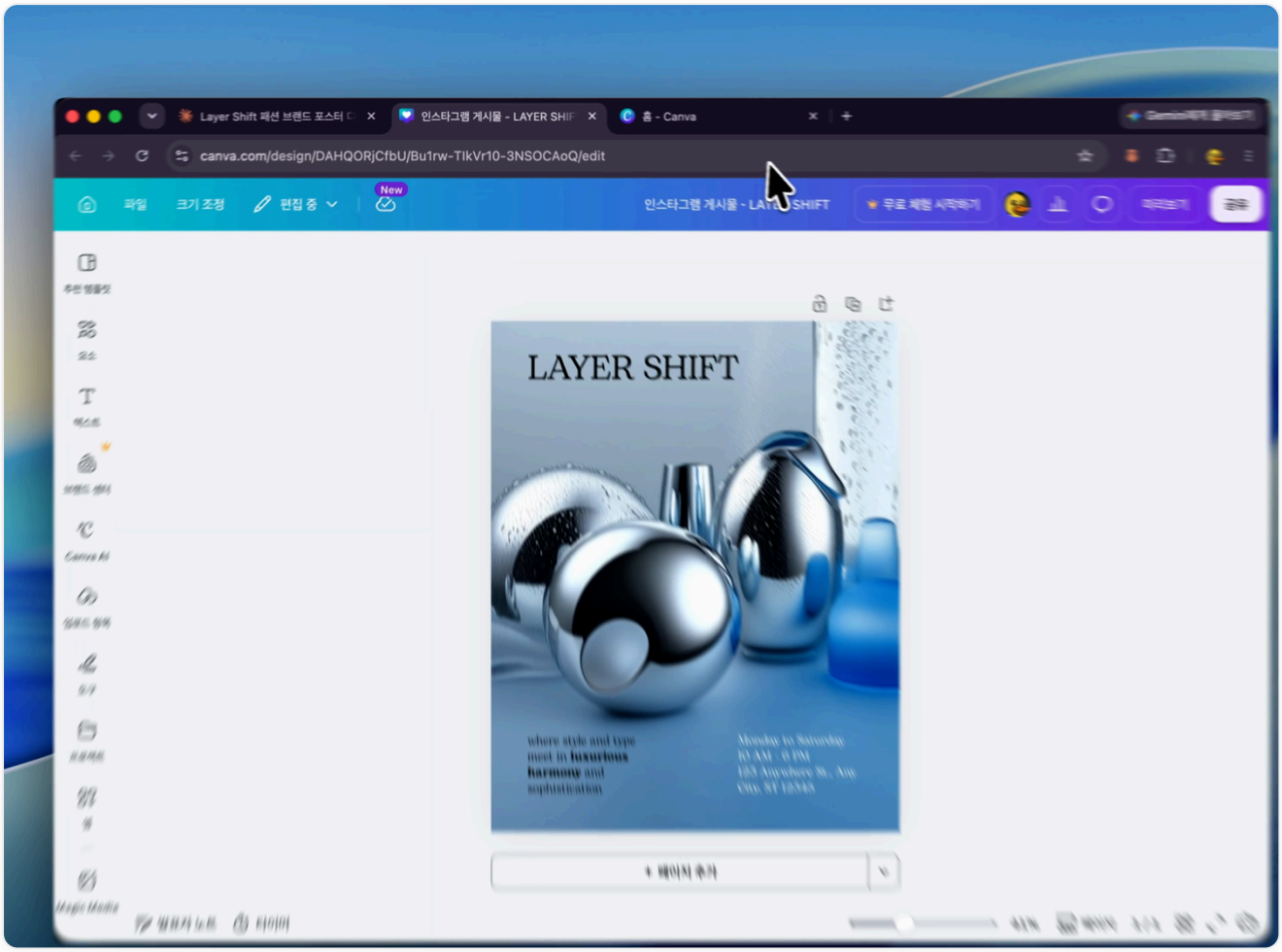


열기 — 고른 시안을 'Canva에서 열기'

3.3 기본만 손봐도 완성

캔바 편집 화면에서는 어려운 걸 할 필요 없습니다. 딱 세 가지만 할 줄 알면 돼요.

- **글자 고치기** — 텍스트를 두 번 눌러 내용·크기 수정
- **색 바꾸기** — 요소를 누르고 상단 색상 버튼
- **요소 지우기** — 필요 없는 건 누르고 Delete



편집 — 넘어온 포스터를 캔바에서 텍스트·색만 손보면 끝

편집이 부담되면, 아예 클로드한테 다시 부탁해도 됩니다. 톤은 유지하고 문구만 바꾸는 식으로요.

```
방금 2번 시안 톤은 그대로 두고,
메인 카피만 "[새 문구]"로 바꿔서 다시 만들어줘.
```

⚡ 한 단계 더 — 캔바에서 직접 고치는 것과 클로드한테 다시 부탁하는 것, 둘 다 됩니다. 큰 변화(레이아웃·콘셉트)는 클로드에 다시, 작은 손질(오타·색 하나)은 캔바에서 직접이 빠릅니다.

✦ 이 PART의 핵심 정리

- 후보는 카피 가독·여백·주제 적합 세 가지로 고른다
- "Canva에서 열기"로 내 캔바 편집 화면에 그대로 가져온다
- 글자·색·요소 정도만 손보면 완성 — 크게 바꿀 건 클로드에 다시 부탁

PART 4 전체 6장

이렇게도 쓴다 (활용 확장)

포스터 하나 만들 줄 알면, 사실 대부분의 디자인이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. 용도만 바꿔 부탁하면 돼요. 자주 쓰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.

4.1 용도별 부탁 각도

- **상세페이지 상단 배너** — "쇼핑몰 상세페이지 맨 위에 들어갈 가로 배너, 제품명과 한 줄 소개"
- **유튜브 썸네일** — "클릭하고 싶어지는 16:9 썸네일, 큰 제목 + 시선 끄는 색"
- **명함** — "가로 명함, 이름·직함·연락처, 깔끔하고 신뢰감 있게"
- **행사 포스터** — "행사 안내 세로 포스터, 날짜·장소·핵심 문구 강조"
- **인스타 캐러셀** — "같은 톤으로 5장짜리 카드 뉴스, 1장은 표지 느낌"

4.2 용도만 바꾸는 복붙 표

아래 틀에서 **용도·비율·문구**만 바꾸면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.

```
캔바로 [용도]를 만들어줘.
- 비율: [4:5 세로 / 1:1 정사각 / 16:9 가로 중 택1]
- 주제/내용: [무엇을 담을지]
- 꼭 들어갈 문구: [핵심 텍스트]
- 무드: [분위기]
- 후보 4개 보여줘
```

용도	추천 비율	꼭 넣을 것
상세페이지 배너	16:9 가로	제품명 + 한 줄 소개
유튜브 썸네일	16:9 가로	큰 제목 + 강한 색
인스타 피드	4:5 세로	메인 카피 한 줄
명함	가로 명함	이름·직함·연락처
행사 포스터	4:5 세로	날짜·장소·핵심 문구

⚡ 한 단계 더 — 브랜드 색이나 로고가 있으면 "메인 색은 #f97316(주황)으로", "여기 로고 넣을 자리 비워줘"처럼 조건을 더해 주세요. 시안이 훨씬 내 것처럼 나옵니다.

✦ 이 PART의 핵심 정리

- 포스터와 똑같은 방식으로 배너·썸네일·명함·행사물까지 만든다
- 하나의 복붙 틀에서 용도·비율·문구만 바꾸면 된다
- 브랜드 색·로고 자리 같은 조건을 더하면 더 내 것다워진다

PART 5 전체 6장

막힐 때 (FAQ · 체크리스트)

처음엔 한두 군데서 막힐 수 있어요. 자주 나오는 상황과 해결법을 모았습니다. 대부분 여기서 풀립니다.

5.1 자주 막히는 다섯 가지

- **커넥터가 안 보여요** — 클로드를 **웹(claude.ai)** 에서 열었는지 확인하세요. 커넥터를 지원하는 플랜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.
- **권한 화면에서 거부가 눌렸어요** — 처음부터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. PART 1의 1.2부터 다시 하세요. 한 번 더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
- **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** — 부탁이 너무 짧지 않았는지 보세요. 무드·스타일·카피를 한 줄씩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확 좋아집니다. "명품 캠페인처럼" 같은 레퍼런스 한 줄이 특히 강력합니다.
- **한글이 어색하게 나와요** — "한글 폰트로, 문구는 정확히 이대로: [문구]"라고 못을 박아 주세요. 문구를 따옴표로 감싸면 더 정확합니다.
- **어디에 저장되나요** — "Canva에서 열기"로 넘어간 디자인은 **내 캔바 계정**에 저장됩니다. 캔바에서 PNG·PDF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
5.2 완성 체크리스트

내보내기 전에 이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.

- ☐ 캔바가 **연결**되어 있다 (한 번 했으면 유지됨)
- ☐ **비율**이 쓸 곳에 맞다 (피드 4:5 / 배너 16:9)
- ☐ **카피에 오타**가 없다
- ☐ 캔바에서 **저장·다운로드**했다

> ⚡ 한 단계 더 — 잘 나온 프롬프트는 메모장에 저장해두세요. 다음에 비슷한 걸 만들 때 그 틀만 조금 바꿔 쓰면, 매번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.

마치며

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, 이제 디자인 툴이 더는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. 포토샵을 배우지 않아도, 말 한마디로 포스터가 나오니까요. 오늘 만든 첫 포스터를 시작으로, 필요한 건 그때그때 불러내 쓰시면 됩니다.

더 많은 무료 자료는 **바이브 메이커 자료실(docs.vibemake.kr)** 에 있고, 새 팁은 인스타그램 **@vibemak2r** 에서 이어집니다. 만든 결과물이 있으면 편하게 보여주세요 —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요.

✦ 이 PART의 핵심 정리

- 커넥터가 안 보이면 웹·플랜 확인, 거부됐으면 다시 연결하면 된다
- 결과가 아쉬우면 무드·스타일·카피를 한 줄씩 더 구체적으로
- 내보내기 전 연결·비율·오타·저장 네 가지를 확인한다